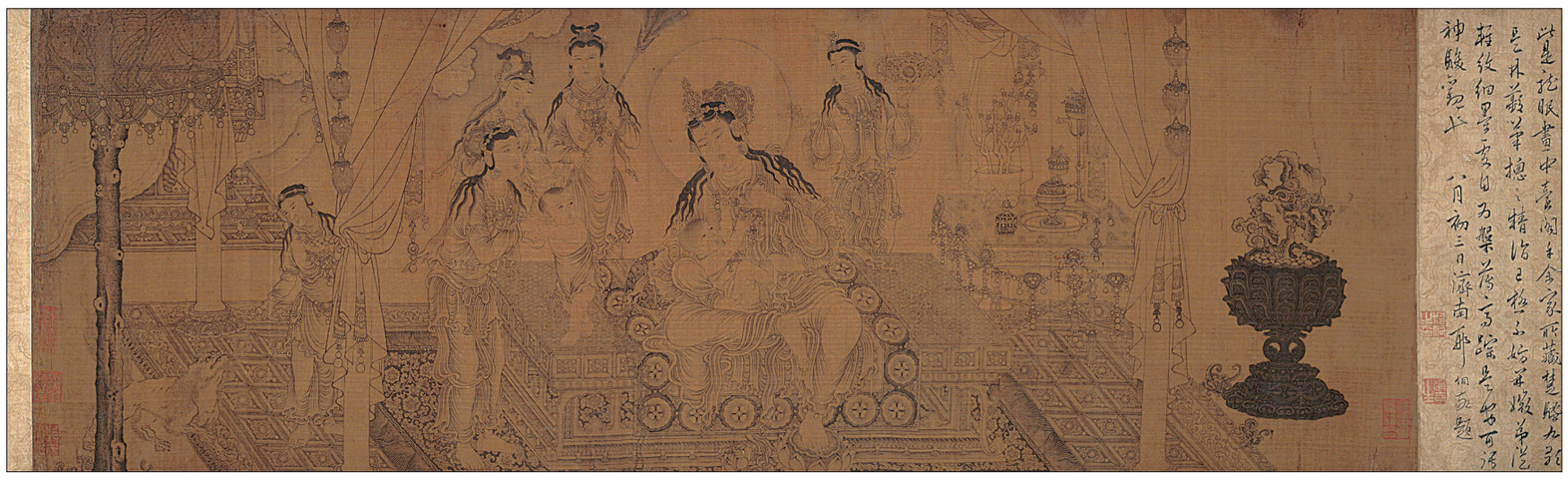


〈이모육불도〉 왕진붕, 중국 원, 14세기 전반, 보스턴미술관. 석가모니의 이모이자 양모로 최초의 여성 출가자가 된 대애도(大愛道)를 그렸다. 한국 첫 전시.

여성 관점서 한·중·일 불교미술 만나다

호암미술관, 6월 16일까지 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국내외 27개 컬렉션 92건 출품…'수월관음도' 등 최초 공개 9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호암미술관이 동아시아 불교미술에 담긴 여성의 번뇌와 염원, 공헌을 조망하는 대규모 기획전을 연다. 3월 27일~6월 16일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불교미술을 후원하고 제작했던 여성들을 조망하는 전시로 눈길을 끈다.

전시 제목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Unsullied, Like a Lotus in Mud)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놓은 최초의 불교 경전 〈숫타니파타〉에서 인용한 문구다. 불교를 믿고 불교미술을 후원, 제작했던 '여성'들을 진흙에서 피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연꽃'에 비유했다.

기원후 1세기경 부처님 가르침이 동아시아로 전해진 이래 여성은 불교를 지탱한 옹호자이자 불교미술의 후원자, 제작자로서 기여해 왔다. 당시 여성들은 불교를 통해 원(願)을 세우고 이뤄가는 성취감과 이로 인해 쌓은 공덕을 타인에게 돌리는 고귀한 기쁨을 알아갔다. 이 전시는 진흙에서 피어난 청정한 연꽃처럼 사회와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나'로 살고자 했던 여성들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암미술관은 전 세계 27개 컬렉션에서 모은 불화, 불상, 사경과 나전경함, 자수,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미술 걸작품 92건(한국미술 48건, 중국미술 19건, 일본미술 25건)을 한자리에 모았다. 작품 중 한국에서는 리움미술관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 기증품' 9건을 포함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등 9개의 소장처에서 국보 1건, 보물 10건, 시지정문화재 1건 등 40건을 선보인다. 해외에서는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보스턴미술관 등 미국의 4개 기관, 영국박물관 등 유럽의 3개 기관, 도쿄국립박물관 등 일본의 11개 소장처에서 대여한 일본 중요문화재 1건, 중요미술품 1건, 현지정문화재 1건 등 52건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 중 〈금동 관음보살 입상〉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1-7〉 〈아미타여래삼존도〉 〈수월관음보살도〉 등 9건은 국내에서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던 조선 15세기 불전도의 일부인 〈석가탄생도〉(일본 혼가쿠지)와 〈석가출가도〉(독일 쾰른동아시아미술관)를 세계 최초로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석가여래삼존도〉(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47건도 한국에서 처음 전시하는 작품이다.



일반에 첫 공개되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 백제, 7세기 중반, 개인소장.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다시 나타나는 여성'에서는 불교미술 속에 재현된 여성상을 인간, 보살, 여신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지난 시대와 사회가 여성을 바라본 시선을 이야기한다.

1부는 첫 번째 섹션 **'여성의 몸:모성(母性)과 부정(不淨)'**에서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불전도와 중국 원대의 백묘화, 고려시대의 변상판화, 일본 에도시대의 회화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불화의 향연을 통해 불교미술 속에 시각화된 여성의 유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2섹션 **'관음: 변신(變身)과 변성(變性)'**에서는 본래는 남성이지만 모든 중생의 어머니가 돼 달라는 뭇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대자대비하고 자유자재한 관음보살의 응신들이 눈앞에 동시에 현현한 듯한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1부 마지막 섹션 **'여신들의 세계: 추앙과 길들임 사이'**에서는 고려시대 왕실과 민간에서 활발히 신봉했던 마리지천과 일본과 중국의 불화 속 부처님의 감화를 받아 선신(善神)으로 거듭난 귀녀(鬼女)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을 교화시키고 길들여야만 하는 존재로 바라본 과거의 시선을 살펴본다.

2부 '여성의 행원(行願)'에서는 찬란한 불교미술품 너머 후원자와 제작자로서 여성을 발굴해 사회와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기로서 살고자 했던 여성들을 만나 본다. 저고리 안에 쓴 발원문, 사경 말미에 금물로 적은 기록, 불화의 붉은색 화기란에 빼곡히 적힌 여성들의 이름과 바람들에 주목한다.

2부의 첫 번째 섹션 **'간절히 바라옵건대:성불(成佛)과 왕생(往生)'**에서는 사경과 복장 발원문이 펼쳐진 공간에서 고려 여성들이 공덕을 쌓은 마음을 돌아보고, 아미타여래, 극락정토와 관련된 불화와 불상을 통해 여성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내세를 조망한다.

2섹션 **'암탉이 울 때: 유교사회의 불교여성'**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의 왕실 여성들이 발원한 불상과 불화를 통해 불교도이자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헤아린다.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문정왕후(1501~1565)가 발원한 〈영산회도〉와 〈석가여래삼존도〉 〈약사여래삼존도〉는 16세기 금선묘(金線描) 불화를 통해 한 시대의 불화 양식을 선도한 독보적인 후원자로서 왕실 여성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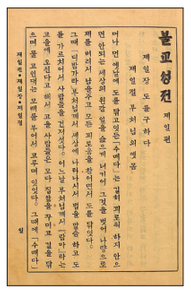
마지막 섹션 **'여공(女工): 바늘과 실의 공덕'**에서는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자수와 복식을 여성의 일이자 예술이란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본다.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물〉 일습은 1662년 나인 노예성이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인 경안군 부부와 동료 나인들의 장수를 바라며 불상 안에 봉안한 것으로, 저고리와 배자를 포함한 556점의 복장물이 13년 만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전시를 담당한 이승혜 큐레이터는 "시대와 지역, 장르의 구분을 벗어나 여성의 염원과 공헌이란 관점에서 불교미술을 조명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전통미술 속에서 동시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31-320-1801

민족사, 근대 개화기 불서 9종 원본 전시

4월 4~7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4월 4~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 근대 개화기 불서 원본 9종을 공개한다. '불서, 100년 전으로 가다'를 테마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9종의 개화기 불서 초판본이 공개될 예정이다.



허영호(1900~1958) 〈불교성전〉 (해동역경원, 1936)

일반적으로 '근대 출판'이라고 하면 과거 목판에서 수작업으로 한 장 한 장 찍어 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판방식인 연활자를 이용해 다량 출판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9권은 1910년대~1945년대까지 근대 개화기 불서로 불교출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조선불교유신론(불교서관, 1913), △불교대전(범어사, 1914) △백용성(1864~1940)의 귀원정종(중앙포교당, 1913) △각해일륜(대각교당, 1930)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성전인 허영호(1900~1958)의 불교성전(해동역경원, 1936)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첩(1929년) △신소천(1897~1978)의 금강반야바라밀경 강의(사바도원, 1936) △안진호(1880~1965)의 신편 팔상록(만상회, 1942) △김적음(1900~1961)의 극락 가는 길(선학원, 1936) 등이다. 모두 민족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들로, 전시에서는 간단한 해설도 포함됐다.

윤창화 대표는 "책은 글을 쓰는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독자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지적 예술로 저자는 책 속에 자신이 탐구한 세계와 혼을 담고, 출판사는 정성 들여 그 혼집을 짓고, 독자는 그 혼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면서 "기대와 설렘 속에 탄생한 책이 지적유산으로서 영원히 독자의 가슴에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한국 사찰과 명상, 'K불교문화' 콘텐츠로

문화재연구원 · 불교방송
3월 26일,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이 BBS불교방송(이사장 덕문스님)과 3월 26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자연유산을 활용한 K불교명상 콘텐츠 구축·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내 유일 문화·자연유산 종합 연구기관과 불교계 공익 방송재단이라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불교명상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전시·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국가유산(자연유산)의 가치증진 및 국내외 홍보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과 사찰경관림을 활용한 K불교명상 콘텐츠 제작 △자연유산 명승 등으로 지정된 사찰의 전시·교육·홍보 △국가유산 체제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대표적인 전통 불교유산 중 하나인 명상은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실현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행 방법의 하나이다. 이에 양 기관은 불교명상 문화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사찰경관림과 같이 우리나라 사찰 주변의 빼어난 자연과 함께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 26개소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조사하고 BBS불교방송은 영상촬영과 편집, 방송 프로그램 송출 등을 각각 담당해 K불교명상을 보급한다. 임은호 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6일
6월10일 출발~6월15일 도착(6일간)
동참금 | 239만원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 년전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낸 세계 최대의 불탑으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2024년 5월24일~6월2일
동참금 | 33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인도 히말라야의 고대왕국
라다크, 헤미스사원 축제 8일
2024년 6월13일~6월2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델리–라다크–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초 호수–델리–인천
인도 히말라야의 고대왕국 라다크는 천년벽화로 유명한 알치사원과 헤미스 사원 축제 등 수많은 티베트의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51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